

전 남

‘합평 나비대축제’ 문제집 실려 ‘화제’

합평군의 대표축제인 ‘합평 나비대축제’가 초등학교 4학년 듣기·말하기·쓰기 국경교과서 수록에 이어 유명 출판사의 문제집에도 실려 화제다.

9일 합평군에 따르면 국내 한 유명 교육출판 전문기업이 지난 3일 출간한 내신대비 문제집 고등사회·지리편에 합평나비대축제가 소개됐다.

이 문제집에서 나비축제는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지역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 단원의 요약정리 페이지와 문제 풀이 페이지 등 2쪽에 지난해 열렸던 ‘제12회 합평 나비대축제’의 포스터와 함께 실렸다.

특히 이 문제집에서 “나비축제는 축제를 통해 지역소득 증가, 친환경 농산물 판매 증가, 청정지역의 이미지 획득,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개발 등의 효과를 올린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합평군 관계자는 “초등 국경교과서 수록에 이어 이번 문제집에도 인용된 것은 합평 나비축제가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명품축제 만들기에도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순천 폐철도부지, 시민공원으로 만든다

전라선·경전선 복선화사업 종료 후 12km부지

2015년까지 보행로·녹지공간 등 단계적 조성

전철 복선화 과정에서 생긴 순천시 내 폐철도 부지가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한다.

9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라선과 경전선에 대한 전철 복선화사업이 상반기 중 끝나면 발생할 총 12km(19만3천㎡)의 폐선부지를 보행로나 자전거도로, 녹색공간 등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용당동~조곡동 장대공원 구간 1.6

km(전라선)는 문화 및 근린공원으로, 금당~광양을 경계 구간 3.4km(경전선)는 보행로 및 녹지공간으로, 금당~율촌면 구간 7km(전라선)는 자전거도로 및 녹색 보행로 등으로 꾸며진다.

폐선부지 매입비는 총 112억원으로, 시는 2015년까지 단계적 매입에 나설 계획이며 올해 우선 9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특히 폐철도 구간 보행로나 자전거 도로를 인근 광양이나 여수까지 연장하는 등 폐선부지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여수시와 광양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협력을 요청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익산~순천~여수를 잇는 전라선, 광주~보성~순천~광양 구간의 경전선에 대한 복선화 공사가 지난 2006년 시작돼, 올해 마무리 된다”며 “폐철도 부지 활용도를 높이려면 광양시와 여수시 등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친환경 축산 직불금 신청하세요

11~20일까지... 소득 감소분·생산비 차액 지원

전남도는 친환경축산 실천농가에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는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 사업을 11일부터 20일까지 신청받는다

직불금 신청자격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 농가중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다.

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20일까지 농장 소재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축산업등록증, HACCP 지정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농가는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해 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서·판매내역서)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직불금 신청농가에 대해 친환경축산 실천여부 등 실태점검을 거쳐 30일까지 선정해 통보하게 된다.

직불금 지급농가로 선정되면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총 3회까지 지급받는다. 축종별로 유기축산물의 경우

한우는 1마리당 17만원, 젓소(우유)는 1ℓ 당 50원, 돼지는 1마리당 1만 6000원, 산란계는 계란 1개당 10원, 육계는 1마리당 200원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오리가 새롭게 추가돼 오리 1마리당 400원, 오리 알은 1개당 20원이 지원되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2000만원으로 환경친화축산 장장은 20%가 추가 지급된다.

무항생제의 경우 한우 1마리당 6만 5000원, 젓소 ℓ 당 10원, 돼지 1마리당 6000원, 산란계 계란 1개당 1원, 육계 1마리당 60원, 오리 1마리당 120원, 오리 알은 개당 2원을 지급한다.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직불제 사업은 지난 2009년 시작됐으며 지난해 전남에서만 전국의 25%가 넘는 52농가에서 5억2000만원의 직불금을 받았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박철환 해남군수

친환경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박철환 해남군수는 “2011년 한 해는 해남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희망과 번영’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친환경 농수축산업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발한 스포츠마케팅과 지역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명소 개발과 문화예술진흥에 힘쓰는 동시에 깨끗하고 살기 좋은 녹색생태환경 조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현안사업인 기업도시와 화원관공단지(오시야노) 개발사업의 지원에도 노력해 해남발전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 군수는 “모두가 찾고 싶은 관광명소 개발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다양한 체형과 프로그램이 접목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관광개발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팜골순례문화관, 해양자연사 박물관, 이순신 체협공원, 팜골 천년숲 옛길복원,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은 계속 시행한다.

귀농인 농업인턴제 시행

박 군수는 “모두가 공감하는 따뜻한 복지행정 추진과 열린 행정, 봉사행정, 교육도시 실현도 올 한 해 해남군이 추진해 나갈 소중한 과제”라고 밝혔다.

우선 친환경 농수축산업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가공·마케팅 사업을 주도적으로 펼쳐 나간다.

농수산업의 기반시설과 차별화된 기술개발 보급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으로, 농수산물 저온저장시설, 공동작업장 등 유통지원 시설 확충과 ‘양과자와 벨리 사업’과 같은 고품질 농업기술 확대보급에도 노력한다.

친환경축산 육성을 위해 축사환경 및 시설개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주력하고, 귀농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귀농인 농업인턴제’를 시행한다.

또한 모두가 공감하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위해 노인일자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요양 시설 인프라 확충과 노년여가 활동지원에 힘쓸 방침이다.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을 위한 생계급여, 의료지원과 함께 직접 찾아가 봉사하는 맞춤형 복지사업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한다.

군은 활발한 스포츠 마케팅과 지역개발 사업을 지속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단위 대회 다년 계약제와 스포츠투어리즘, 맨투맨 결연 프로그램을 지속 보완하고, 생활체육 종목에 대한 유치도 확대해 나간다.

기업도시·회원단지 개발

확대로 착실히 추진한다. 더불어 깨끗하고 살기좋은 녹색생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김골조성과 공원조성으로 녹색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해남천, 삼산천, 고천암 등 주요하천에 대한 생태계를 복원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위원회를 설치하고, 열린봉사 행정을 위해 ▲군민과 현장대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제도로 적극 활용한다.

박 군수는 “2011년에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열심히 해서 부끄럽지 않은 군수, 군민과 함께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곡성군 서울서 직거래장터

26~27일 6품목 20종 판매

곡성군은 오는 26~27일 이틀간 서울 대도시 자매결연지인 강동구청, 동작구청에서 설맞이 직거래장터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군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 농산물로 오색떡국, 팥감, 밤, 벌꿀, 토란, 잡곡 등 6품목 20종을 판매한다.

특히 곡성 1000ha에서 생산된 친환경인증 무농약 쌀로 만든 유기농 오색떡국은 도시민들에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남석 군수는 “앞으로 대도시권과 자매결연 확대를 통해 곡성 우수 농산물을 적극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한파 속 봄동 수확

최근 영하 1~4도 가량의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완도군 고금면 들녘에서 봄동수확이 한창이다. 봄동은 달고 사각거리며 씹히는 맛이 좋아 입맛을 돋우는

절절이나 씹으로 즐겨 먹는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목포항 인근에 외국인 선원 합숙소

8월까지 편의시설 갖춰 200여명 규모로

목포에 속소와 식당, 선원 대기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외국인 선원 합숙소가 마련된다.

9일 목포시에 따르면 안강광과 근해 유지방 어선 등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200여 명이 합숙할 수 있고 편의시설을 갖춘 외국인 선원 합숙소를 오는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외국인 선원 복지증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선원 수급 안정, 어업 경영자의 개별관리에 따른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합숙소 건립에 나섰다.

시는 국비 등 15억원을 들여 목포항과 가까운 원도심내 건물을 사들여 오는 8월까지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다.

목포에 사는 외국인 선원은 등록된

어선 1080척 중 근해 안강광과 유자망 어선 101척에 210명(척당 2~3명)이다.

이들은 주로 선주가 임대한 주택에서 선단 승선자별 자취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 주민들의 외국인 기피현상으로 주택 임대료가 어렵고 거주 환경 취약, 개별관리 비용 부담 증가, 원만한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다.

한편 정부는 연근해 어선의 선원난을 없애고자 외국인 승선 비율을 정원 40%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임정훈기자 lyc@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featuring a list of properties for sale and lease across various locations like Gwangju, Mokpo, and Jeonju.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disclaimer.